

일부지역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ody Imag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김한홍*, 김선주**

강동대학교 치위생과*,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치위생학과**

Han-Hong Kim(rlagksghd@hanmail.net)*, Sun-Ju Kim(sjkim@cju.ac.kr)**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평균은 2.79±0.42점, 신체이미지 평균은 2.85±0.53점, 대인관계능력 평균은 3.23±0.48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외모만족도와 그 하위영역인 신체강도 및 신체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p<0.001), 학제(p=0.005), 임상실습경험(p=0.006), 외모만족도(p=0.003), 신체이미지(p=0.002)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5.6%였다.

위의 결과에서와 같이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와 신체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외모만족도 | 신체이미지 | 대인관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level of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their own appearance and their body imag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to gather data from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April 1 to May 7, 2013.

The students investigated got a mean of 2.79±0.42, 2.85±0.53 and 3.23±0.48 in appearance satisfaction, body imag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respectivel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ody strength, one of its subfactors, and interpersonal skill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body image as well. A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body image were identified as influential factors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it's quite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have a positive self-concept to build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fore personal counseling should be provided for students to take the right view of their own appearance and bodies, an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programs are required as well.

■ keyword : | Appearance Satisfaction | Body Image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I. 서론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으로써, 인간은 일생동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사회생활적응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1]. 특히, 사회적 인지 능력이 확대되는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형성된 대인관계가 이후 대인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더욱 다원화되는 의료서비스 현장에서는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대인관계능력을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치과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성인초기의 발달과제인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 문제 뿐 아니라 향후 임상현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치위생(학) 교육은 국가시험 위주의 교육과정과 기술적 역량만을 강조하고 주입하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은 현실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모는 신체의 생김새부터 얼굴, 화장, 헤어스타일, 몸매, 의복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전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만의 이미지 연출에서 보이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성격, 호감도, 느낌, 취향, 생각, 직업 등을 파악할 수 있다[3]. 사람을 처음 대하게 될 때 짧은 시간동안 외모로 표현되는 정보를 통해 타인을 신속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외모만족도(Appearance satisfaction)란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로써,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며 더 현명하고 더 대인관계가 좋을 것이라 평가한다[5]. 외모만족은 객관적인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향이 많으며 이것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지한다[6]. Cash 등[7]은 외모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불안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어,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태도가 개인의 삶에서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것과 연관된 느낌과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외모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8]. 사람이 신체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태도의 총칭인 신체 이미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4]. 특히, 외모만족과 신체이미지는 여자대학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9], 여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별개로 미에 대한 잘못된 이상형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가치관을 심어 줌으로써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이 지각하는 외모만족도나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소속된 조직과 병원의 업무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임상현장에서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단시간 연습을 통해 향상시키기 어려우므로 대인관계능력을 갖춘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위생 교육이 시작되는 대학과정동안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와 외모만족도 및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2][4][5][9-11], 미래의 보건의료 인력인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외모만족도나 신체이미지와 관련한 대인관계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에 대한 만족도, 신체이미지,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과 향후 치과의료 인력으로서 환자와의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편의 추출된 충청북도 소재 3개 대학교, 대전광역시 1개 대학교, 경상남도 1개 대학교 치위생(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584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6부를 제외한 57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탈락률은 1.02%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표본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30,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정력 0.9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본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데 충분한 표본수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의 특성은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설문 참여는 학생 자의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불참 의사를 밝히게 되는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대상자에게 간단한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는 작성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주관적 이미지 평가를 위한 외모만족도 19문항과 신체이미지 9문항, 대인관계능력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으로 나타내었다.

3.1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는 Mendelson과 White[12]의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바탕으로 이주하[13]가 수정·보완하여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식 5점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19문항으로 신체매력(5문항), 신체강도(7문항), 신체조건(7문항)으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하[13]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0이었다.

3.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Cash[8]의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차경호 등[14] 및 이승희와 심지연[15]이 개발한 도구를 이현주[4]가 수정한 도구로, 총 9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점수 1~5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이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현주[4]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73이었다.

3.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16]에 의해 개발되고 국내의 PSI 컨설팅이 번안한 도구를 정태영[17]이 수정한 도구로 총 15개의 문항으로 하위영역으로는 타인기질 5문항, 의사소통 5문항, 관계촉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점수 1~5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태영[1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2이었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0(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미지평가 및 대인관계능력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대상자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8.8%로 많았고, 연령은 20-24세 57.1%로 가장 많았다. 학제는 3년제 70.1%, 4년제 29.9%였고, 학년은 1학년 25.6%, 2학년 38.1%, 3학년 26.8%, 4학년 9.5%였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31.8%, 없는 경우가 68.2%였고, 가정형편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9.9%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76.6%로 가장 많았다[표 1].

2.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외모만족도의 평균은 2.79±0.42점이며, 하위영역의 신체매력은 2.00±0.78점, 신체강도는 3.02±0.55점, 신체조건은 3.13±0.39점이었다. 신체이미지의 평균은 2.85±0.53점이었다.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23±0.48점이며, 하위영역의 타인기질은 3.50±0.46점, 의사소통은 3.28±0.48점, 관계촉진은 3.07±0.58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빈도	%
성별	남	7	1.2
	여	571	98.8
연령	19세 이하	242	41.9
	20-24세	330	57.1
	25세 이상	6	1.0
학제	3년제	405	70.1
	4년제	173	29.9
학년	1	148	25.6
	2	220	38.1
	3	155	26.8
	4	55	9.5
임상실습 경험	있다	184	31.8
	없다	394	68.2
경제상태	잘산다	24	4.2
	보통이다	462	79.8
	어렵다	92	16.0
전공만족	매우 만족한다	65	11.2
	대체로 만족한다	443	76.6
	불만족한다	63	10.2
	매우 불만족한다	7	1.2

표 2.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대인관계능력의 정도

구분	Mean	†SD
외모만족도	2.79	0.42
신체매력	2.00	0.78
신체강도	3.02	0.55
신체조건	3.13	0.39
신체이미지	2.85	0.53
대인관계능력	3.23	0.48
타인기질	3.50	0.46
의사소통	3.28	0.48
관계촉진	3.07	0.58

†SD: standard deviation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외모만족도는 학제(p=0.001), 학년(p=0.018), 경제상태(p=0.028), 전공만족도(p=0.001)에서, 신체이미지는 학제(p=0.005), 학년(p=0.023), 전공만족도(p<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연령(p<0.001), 학년(p<0.001), 임상실습경험(p<0.001), 전공만족도(p=0.0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대인관계능력

구분	특성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대인관계능력	
		† M±SD	p-value	M±SD	p-value	M±SD	p-value
성별	남 여	2.84±0.37 2.79±0.42	0.773	2.73±0.42 2.85±0.53	0.547	3.09±0.60 3.23±0.48	0.458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	2.76±0.42 2.82±0.43 2.64±0.39	0.210	2.80±0.53 2.88±0.52 2.96±0.44	0.160	3.07±0.46 ^a 3.34±0.47 ^a 3.26±0.52 ^b	<0.001 ^{***}
학제	3년제 4년제	2.75±0.40 2.88±0.46	0.001 ^{**}	2.81±0.52 2.94±0.52	0.005 ^{**}	3.21±0.48 3.26±0.50	0.298
학년	1 2 3 4	2.81±0.42 ^{ab} 2.76±0.42 ^a 2.76±0.40 ^a 2.95±0.48 ^b	0.018 [*]	2.87±0.55 ^{ab} 2.79±0.53 ^a 2.83±0.51 ^a 3.03±0.46 ^b	0.023 [*]	2.93±0.42 ^a 3.14±0.43 ^b 3.48±0.39 ^c 3.67±0.44 ^d	<0.001 ^{***}
임상실습경험	있다 없다	2.80±0.43 2.79±0.42	0.653	2.87±0.51 2.84±0.53	0.534	3.55±0.41 3.07±0.44	<0.001 ^{***}
경제상태	잘산다 보통이다 어렵다	3.00±0.34 ^b 2.79±0.42 ^a 2.74±0.45 ^a	0.028 [*]	3.06±0.42 2.84±0.52 2.82±0.55	0.112	3.09±0.49 3.22±0.47 3.28±0.52	0.247
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2.95±0.41 ^b 2.79±0.42 ^{ab} 2.69±0.44 ^{ab} 2.46±0.27 ^a	0.001 ^{**}	3.11±0.43 ^b 2.83±0.52 ^{ab} 2.74±0.53 ^{ab} 2.53±0.62 ^a	<.001 ^{***}	3.35±0.55 ^b 3.21±0.47 ^{ab} 3.26±0.50 ^{ab} 2.92±0.45 ^a	0.047 [*]

† M±SD: mean standard deviation

*p<.05, **p<.01,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a-d}: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t by Scheffe method comparison at 0.05 significance level

4.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외모만족도와 그 하위영역인 신체강도 및 신체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외모만족도는 신체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5.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학년(p<0.001), 학제(p=0.005), 임상실습경험(p=0.006), 외모만족도(p=0.003), 신체이미지(p=0.002)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5.6%였다[표 5].

표 4.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구분	대인관계능력	타인 기질	의사 소통	관계 촉진	외모만족도	신체 매력	신체 강도	신체 조건
타인 기질	.665 ^{**}							
의사 소통	.714 ^{**}	.535 ^{**}						
관계 촉진	.660 ^{**}	.418 ^{**}	.566 ^{**}					
외모만족도	.103 [*]	.089 [*]	.131 ^{**}	.091 [*]				
신체 매력	-.011	-.018	.019	-.019	.742 ^{**}			
신체 강도	.179 ^{**}	.148 ^{**}	.190 ^{**}	.171 ^{**}	.838 ^{**}	.366 ^{**}		
신체 조건	.068	.079	.091 [*]	.054	.717 ^{**}	.248 ^{**}	.544 ^{**}	
신체 이미지	.258 ^{**}	.187 [*]	.321 ^{**}	.238 ^{**}	.707 ^{**}	.490 ^{**}	.682 ^{**}	.429 ^{**}

*p<.05, **p<.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표 5.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B	SE	Beta	p-value
성별(남/여)	-0.014	0.162	-0.003	0.931
연령(year)	-0.015	0.010	-0.060	0.152
학제(3/4)	-0.146	0.052	-0.137	0.005**
학년(1/2)	0.247	0.044	0.246	<.001***
학년(1/3)	0.424	0.087	0.385	<.001***
학년(1/4)	0.494	0.109	0.297	<.001***
임상실습경험(무/유)	0.242	0.087	0.231	0.006**
전공만족도 (매우불만족/불만족)	0.136	0.160	0.087	0.398
전공만족도 (매우불만족/만족)	0.192	0.153	0.166	0.210
전공만족도 (매우불만족/매우만족)	0.296	0.161	0.192	0.067
외모만족도	0.136	0.047	0.148	0.003**
신체이미지	0.277	0.046	0.250	0.002**
R ²	0.356			

SE: standard error

*p<.05, **p<.01,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V. 논의

대학생활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장차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대인관계능력이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과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외모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외모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79점이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미영[18]의 연구에서 외모만족도 평균 점수는 3.14점이었고,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지혜[5]의 연구에서는 평균 2.81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 비해 낮은 외모만족도를 보였다. 외모만족도는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변하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좋게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지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미영[18]은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이 남학생에 비해 높으며, 공수자와 이은희[19]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외모만족에 비판적이고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외모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낮다고 보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지되는 경향이 높으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사람들은 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20]. 대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사회에서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욕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높다[21].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불만족하는 외모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신체이미지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85점으로,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현주[4]의 신체 이미지 점수 3.06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효정[10]의 신체이미지 점수 2.88점과 비교하여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신체이미지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개인적인 만족 혹은 사회적 성공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4]. 신체이미지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여성이 신체이미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Secord와 Jouard[22]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자신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체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자아에 대해 만족하며, 외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체이미지에 대한 자각은 자신감을 불러 넣어 주거나 혹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써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8].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3.23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혜선과 이기령[23]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 평균은 3.42점, 김효정[10]의 연구에서는 3.59점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보다 높은 대인관계능력 점수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수진[24]의 연구는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3.52점이었고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정태영[17]의 연구에서는 3.80이었다. 그러나 간호사와 회사원은 이미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대학생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학교생활 뿐 만 아니라 졸업 후 직장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인관계를 필요로 하는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대학생활 부적응의 가장 큰 이유이며 앞으로의 사회생활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25].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이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나 상담소에 방문하는 학생들의 상담 중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1]. 그러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학년($p < 0.001$), 학제($p = 0.005$), 임상실습경험($p = 0.006$), 외모만족도($p = 0.003$), 신체이미지($p = 0.002$)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숙 등[26]은 학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정혜선과 이기령[23]도 학년이 높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더 좋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이수한 교과목이 많으므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외모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외모만족도는 신체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

영주[27]는 외모만족도가 높은 여학생이 학교생활적응도 높다고 하였으며, 이경희와 방은령[11]도 외모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체형과 외형부분이 대인관계성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김효정[10]도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외모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장, 발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8]. 이윤정[28]은 외모만족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의 불안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성희[29]는 외모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데에도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경애[30]는 외모 또는 신체에 만족 할수록 대인불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연숙[31]은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끼며, 최미영[18]도 대학생들의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대학생은 자기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며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반면, 만족스럽지 못한 체형과 외형을 가진 학생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위축될 수 있다. 즉, 본인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외모와 신체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대인관계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교육 전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치위생학 분야에서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과 이와 관련 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나, 간호학 분야에서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필수 교과목으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관련 교과목을 저학년 대상의 기초과목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32][33].

졸업 후 치과임상 실무에서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 교육이 시작되는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을 통해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정과 송

[34]의 연구 및 권과 정[35]의 연구에서도 치과구성원과의 업무상 갈등요인과 대인관계요인이 매우 큰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적절한 대인관계는 치위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 치위생 업무의 성과와 병원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기 외모 및 신체에 대하여 인식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움으로 인한 대인관계 불안과 걱정은 자기표현에서 소극적,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자기외모 및 신체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인 자기표현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18].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외모나 신체이미지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Frost와 Mckelvie[36]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박지현과 최태산[37]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와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수준과 스트레스가 높고[38],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9]. 양계민과 정진경[40]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모든 연령에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모나 신체적 매력과 자아개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외모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4]. 즉, 자신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을 통한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의료 현장에서 대인관계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필요 요소이며,

미래의 치과위생사인 치위생 전공 대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단시간의 교육이나 일회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므로 대학교육 전 과정을 통한 학습과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연속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성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모만족 및 신체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함께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의 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에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갈수록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대인관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외모만족도 평균은 2.79±0.42점, 신체이미지 평균은 2.85±0.53점, 대인관계능력 평균은 3.23±0.48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외모만족도와 그 하위영역인 신체강도 및 신체이미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년($p<0.001$), 학제($p=0.005$), 임상실습경험($p=0.006$), 외모만족도($p=0.003$), 신체이미지($p=0.002$)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5.6%였다.

위의 결과에서와 같이 외모만족도와 신체이미지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바람직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신의 외모 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과 자아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권석만,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모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제30권, 제1호, pp.38-63, 1995.

[2] 권성혜, 이수연,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제10권, 제1호, pp.97-112, 2005.

[3]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2001.

[4] 이현주,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및 이미지 형성이 진로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임지혜, *여자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 김경아,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 T. F. Cash, E. W. Cash, and J. W. Butters, “Mirror, mirror, on the wall?: Contrast effects and self-evalua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 No.3, pp.351-358, 1983.

[8] T. F. Cash,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NY: Guilford Press, 1990.

[9] 이정순, 한경희, “여대생의 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제12권, 제2호, pp.153-164, 2008.

[10] 김효정,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2-70, 2012.

[11] 이경희, 방은령, “대학생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5권, 제1호, pp.325-348, 2011.

[12] B. K. Mendelson, M. J. Mendelson, and D. R. White,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 Pers Assess*, Vol.76, No.1, pp.90-106, 2001.

[13] 이주하, *아동기의 외모만족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4]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05-139, 2006.

[15] 이승희, 심지연, “외모 관련 강박행동이 바디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지*, 제10권, 제2호, pp.181-193, 2006.

[16] J. Warner,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Facilitator's Guide*, Amherst: HRD Press, 2005.

[17] 정태영, *기업관리자의 평생교육 코칭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문제해결능력 및 대인관계능력간의 구조적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8] 최미영, *대학생들의 내외향성, 외모인식, 내외통제성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9] 공수자, 이은희,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21-40, 2006.

[20] S. J. Lennon, N. A. Rudd, B. Sloan, J. S. Kim,

-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cross four group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17, No.4, pp.191-202, 1999.
- [21] 이병임, *대학생의 전공 및 직업선택에 따른 직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 정체감, 사고유형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2] P. F. Secord and S. M. Jourard,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 of Consulting Psychology*, Vol.17, No.5, pp.343-347, 1953.
- [23] 정혜선, 이기령,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분석학회지*, 제14권, 제5호, pp.2635-2647, 2012.
- [24] 이수진, *임상 간호사의 감성지능, 대인관계 능력과 간호업무성과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5] 정민, 장안나,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제2호, pp.669-681, 2009.
- [26]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29-237, 2006.
- [27] 김영주, *중학생의 무용교육활동 참가에 따른 신체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8] 이윤정, “신체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8권, 제7호, pp.974-982, 2004.
- [29] 김성희,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자기주장성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0] 박경애, *MMTIC을 활용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1] 이연숙, *초등학생의 외모만족과 성이 자기 효능감, 학교적응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32] 박정원, “간호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정신질환의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제9권, 제1호, pp.35-43, 2000.
- [33] 김선아, 한나래, 박정화, 김민정, 김현례,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소집단활동과 음악활동의 적용 및 평가”, *정신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07-317, 2010.
- [34] 정정옥, 송귀숙,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8권, 제4호, pp.305-312, 2008.
- [35] 권미영, 정미희,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4권, 제3호, pp.133-140, 2004.
- [36] J. Frost and S. McKelvie,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Sex Roles*, Vol.51, No.1, pp.45-54, 2004.
- [37] 박지현, 최태산, “청소년의 신체이미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1권, 제4호, pp.117-129, 2008.
- [38] 이혜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251-259, 2013.
- [39] 김미혜,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0] 양계민, 정진경,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93연차 대회 발표논문집, pp.67-74, 1993.

저 자 소 개

김 한 홍(Han-Hong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예방치위생, 지역사회구강보건

김 선 주(Sun-Ju Kim)

정회원



- 200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구강보건, 구강보건교육, 예방치위생